

# 推古遺文에서의 「爲」「都」「奴」「布」의 表寫에 對하여

李 鍾 徹  
人文大 國文學科

## I

近者 여러 사람의 努力<sup>1)</sup>에 의하여 十五世紀以後 漢字음이 東國正韻式 規範音を 除外한다면 體系上 그리 큰 變化(後世資料에서 보이는 口蓋音化, △音消失現象을 除外)을 가져오지 않았음이 確認되었다. 이런 事實에 根據하여 姜信沆 教授(1975)는 朝鮮漢字音의 根幹을 이루는 體系가 아주 이른 時期부터 굳어졌으며 十五世紀 現實漢字의 體系를 가지고 五~七世紀以前의 漢字音에 對한 逆視도 可能할 것이라고 보았다.<sup>2)</sup> 그런데, 五~七世紀以前의 漢字音 資料가 없는 우리로서는 그 推定이 困難하지만, 日本의 上代文獻 즉 日本書紀나 古事記에 引用된 三國時代의 人名, 地名, 官名의 漢字音 表寫資料와 이 '記紀'나 萬葉의 時代보다 百餘年이나 앞선것으로 推定<sup>3)</sup>되는 推古遺文<sup>4)</sup>을 援用한다면 어느 程度까지는 可能하지 않을까 한다. 日本書紀나 古事記에 의하면 應神十六年에 이미 우리 先祖들이 論語十卷과 千字文을 가지고, 渡倭하여 그들에게 漢文 學習을 指導했고<sup>5)</sup> 그들로부터 厚待를 받았던 記錄<sup>6)</sup>이 있다. 위의 '記紀'의 記錄을 事實로 認定한다면 韓半島가 中國漢字音을\* 日本列島에

- 1) 河野六郎, 「朝鮮漢字音研究」 資料音韻表 1963.4~1967.7 朝鮮學報  
南廣祐, 「朝鮮(李朝)漢字音研究」~壬辰前現實漢字音을 中心으로~ 東亞出版社 1969  
姜信沆, 「十五世紀文獻의 現實漢字音에 對하여」~訓蒙字會音과의 比較를 통하여~ (成均館大學 刊行, 東洋學 學術會議 論文集) 1975.
- 2) 姜信沆, 前掲書 p 8.
- 3) 大矢透; 假名の 源流考 p 52.
- 4) '日本推古天皇時代의 遺文'을 略稱한 것인데, 現存한 唯一의 日本 最古의 遺文으로서 眞假名로 擬古의 傍訓이 붙어 있는 資料다. 現在 大阪市 天王寺小學校 所藏本이다
- 5) <日本書紀 應神紀 16年>에 依하면,  
十五年秋八月, 百濟王遣阿直岐貢良馬二匹, (中略) 阿直岐, 亦能讀經典, 即太子菟道稚郎子師焉  
於是天皇問阿直岐曰, 如勝汝博士亦有耶, 對曰, 有王仁者是秀也. 時遣上毛君荒田別, 巫別於百濟,  
仍徵王仁也. 其阿直者, 阿直岐史之始祖也. 十六年春二月, 王仁來之. 則太子菟道稚郎子師之. 習  
諸典籍於王仁, 莫不通達. 故所謂王仁者, 是書首等之始祖也.  
<古事記>에 依하면;  
百濟國主照古王, 以牡馬壹匹牝馬壹匹付阿知吉師以貢上(此阿知吉師者阿直史等之祖)亦貢上橫刀及  
大鏡, 又科賜百濟國若有賢人者貢上. 故受命以貢上人名知邇吉師, 即論語十卷, 千字文一卷, 并十一  
卷付是人即貢進(此和邇吉師者文首等祖)
- 6) 1 天皇執高麗表疏, 授於大臣, 召聚諸史, 令讀解之. 是時諸史, 於三日內, 皆不能讀, 受有船史祖  
王辰爾, 能奉讀釋. 由是天皇與大臣, 俱爲讚美, 田勸乎辰爾, 歡設辰爾, 汝若不愛於學, 誰能讀

傳達한 經由地 구실만 한 것이 아니라, 漢字음이 韓半島에 輸入되어 一部는 東晉에 同化되고, 이것이 다시 日本列島로 傳達되었다는 假定이 더욱 妥當한 것이 아닐까 한다. 日本의 萬葉假名가 ‘字音’은 물론이고 그 表記法까지도 鄉札式 影響을 至大하게 받았으리라고 推定<sup>7)</sup> 되므로, 日本上代文獻에서 假名表寫例중에는 당시 東晉의 反映으로 推定되는 것이 많을 것이다. 書紀에 의하면 應神十六年 ‘阿直岐’와 ‘王仁’ 등이 渡倭한 以後 간혹 ‘記錄을 行한 事實’이 있었던 것 같다. 仁德紀 四十一年<sup>8)</sup>에 紀角宿禰를 百濟에 처음으로 보내서 國郡壇場을 나누어서 鄉土의 所出을 記錄했다고 하며 履中紀 四年<sup>9)</sup>에 처음으로 諸國에 「國史」를 두고 言事를 記錄하게 했으며, 四方志에 通達했다고 한다. 또 允恭紀 四年에 ‘盟神探湯(クガタチ),<sup>10)</sup>로서 姓氏를 바로 잡게 했는데 이 때에는 別로 記錄한 것을 國家에 바치게 한 일은 없었는데, 弘私私記 序注<sup>11)</sup>에 의하면 大和國 高市郡에 있던 ‘釜’에, 後世帝王이 被覆車를 보고 每世에 本系를 藏書圖寮에 바치게 했다는 記錄으로 미루어, 이 때부터 집집마다 代代로 내려오던 氏文, 本系牒, 傳統 및 故事등을 記載한 것을 모두 나라에 바치게 했던 일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또 推古紀 28年<sup>12)</sup>에 皇太子인 島大臣과 함께(이것을) 議論해서 天皇記와 國記를 기록했고, 臣連, 伴造, 國造, 百八十部(モモヤソトモ)와 ‘公民等’(オホミタカラドモ)의 本記가 있을 당시에는 이런 記錄文書는 모두어 馬子가 飛鳥川 근처에 있던 집에 堆積했던 것 같다. 그런데, 蝦夷父子가 皇極 四年<sup>13)</sup>에 死刑을 당할때 아직 脫稿한 채로 國史와 함께 豐浦의 집에 두었다가 이것이 모두 灰燼되었고, 船惠尺가 타다 남은 國記를 中大兄에게 바쳤다고 적혀 있다.

다시 말해서 應神以前은 몰라도, 그 以後 堆古時代以前까지 그 사이에 記錄된 公私文書가 상당히 많이 消失된 모양이다. 이미 過去之事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무엇이 의하여 이

解. 宜從今始近侍殿中. 旣而詔東西諸史曰, 汝等所習之業, 何故不就, 汝等雖衆, 不及辰爾.

2. 詔船史王辰爾弟牛 賜姓爲‘津史’

3. 四月, 大唐使人裴世清下客十二人, 從妹子臣, 至於筑紫, 遭難波吉師雄成, 召大唐客裴世清等…六月, 船史王乎爲掌客

4. 十七年夏四月丁酉朔庚子. 筑紫大宰奏上言. 百濟僧道欣惠彌爲首十一人. 俗人七十五人. 泊于肥後國葦北津. 是時遭難波吉士德摩呂, 般史龍.

5. 推古天皇照見其才異仕有功勳, 勅賜官大仁品爲第三殞亡……

- 7) 李崇寧 ; 新羅時代의 表記法體系에 관한 試論(서울大論文集 人文社會科學篇 第二輯 1955) p. 125.  
藤井茂利; 萬葉集의 音假名と 朝鮮漢字音(鹿兒島大學 法文學部 文學科論集 第十二號 1976) pp. 79~91.

大野晉 ; 「古代日本人の ことばと 文字」言語生活 292號

8) 四十一年春三月. 遣紀角宿禰於百濟. 始分國郡壇場. 具錄鄉土所出.

9) 四年秋八月辛卯朔戊戌. 始之於諸國置國史. 記言事達四方志. 冬十月掘石上溝.

10) 飯田武鄉; 日本書紀通釋 p. 2255.

盟神探湯. 此云區訶陀智(クガタチ). 或溼納釜煮沸. 攘手探湯溼. 或燒斧火色. 置于掌.

11) 雄朝妻稚子宿禰天皇御宇之時. 姓氏紛謬. 尊卑難決. 因坐甘權丘. 令探熱湯定眞僞. 今大和國高市郡有益是也. 後世帝王見彼覆車. 每世令獻本系. 藏圖書寮也.

12) 是歲. 皇太子島大臣共議之. 錄天皇記及國記. 臣連伴造國造百八十部 并公民等本記.

13) 蘇我臣蝦蟇等臨誅. 悉燒天皇記國記珍寶. 船史惠尺. 即疾取所燒國記. 而奉獻中大兄.

時代에 있었던 文獻을 밝혀 낼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推古時代에 이르러, 佛法이 興隆한 結果, 새로 堂塔이 建設된 것이 많고, 金石의 工作, 이에 수반하여 생기는 그 由來를 쓴 緣起, 銘文으로 世上에 남아 있는 것이 있으므로 겨우 여기에 依據하는 方途가 있을 뿐이다. 但, 이런 文體는 흔히 漢文體로 되어 있어서 이것으로 當時 言語現實을 把握하기는 困難하다고 해도, 드물게는 日本語를 基礎로 해서 記載한 所謂「史部の 글」이 있어서 그것들은 물론 漢文體라고 하지만, 당시의 人名·地名등은 大部分 眞假名를 사용했기 때문에 假名の 源流를 찾는 資料로 쓰기에 거의 充分할 것이다. 敏達天皇以後 여기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그 國記등의 編纂을 시작해서 内外細大의 諸記錄등은 船氏一族<sup>14)</sup>이 擔當했다고 말해도 지나친말은 아닐 것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國記의 編纂은 이 一族의 史(フビト)의 손으로 이루어졌다는 點은, 船惠尺가 身命을 걸고 불에 타는 國記를 꺼냈다는 事實로 미루어 보더라도 平素 이것에 깊이 關與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반드시 그가 일찍부터 祖父兄弟등과 함께 그 編纂에 從事해 왔고, 成稿以後에도 이것을 간수하여 倉庫의 開閉까지도 맡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國記의 文體는 어떠했을까? 알만한 실마리는 없지만, 그 編纂에 있어서 船氏一族의 손에서 나왔다고 할 때에는 의심없이 推古遺文의 하나인 '上宮記'를 가지고 그 一部라고 생각해서 큰 잘못은 없을 것이다. 그 假名, 그 文體가 '繡帳銘'과 類似했고, 또, 元興寺 '露盤'과 '丈六'의 兩銘이 '繡帳銘'과 서로 비슷하다면 이것들은 모두 당시 筆硯을 받들어 가지고 宮中에서 王을 모신 '船史王後'<sup>15)</sup> 一人의 손으로 써서 바쳤다고 推斷해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그 遺文 속에 사용된 古音은 그 先祖 以來 傳承된 것이라는 것도 역시 스스로 밝혀졌다. 大矢透教授는 「推古朝遺文」에서 보이는 假名の 源流를 中國 周代의 音의 系統이라고 했다.<sup>16)</sup> 大野晋教授는 「推古朝가 記紀·萬葉의 時代보다 百餘年이나 앞섰기 때문에 同一한 文字라도 사용되고 있는 中國의 字音이 다르다고 하여, 推古朝의 假名는 漢魏時代의 音韻에 의하여 說明된다」고 했다.<sup>17)</sup> 大野透教授는 「推古의 假名속에 常用되었던 것은 그 發生에 漢韓의 字音表記의 直接 間接의 影響을 받은 것이 比較的 많다」고 했다.<sup>18)</sup> 中國音에서 假名の 源流를 찾는 것도 研究의 한 方法이지만, 日本 最古의 假名라고 하는 이 推古遺文의 筆錄者들이 어떤 漢字音 體系를 갖고 있는 것인가 追求해서, 거기에 假名の 源流를 찾는 것도 今後 研究해야될 分野인 것이다. 前述한 바와같이, 推古遺文이 渡倭한 우리 先祖들에 의하여 表記되었다는 事實이 確認된다면 推古遺

14) 船氏系譜: 姓氏錄 續紀에 依하면;

百濟 貴須王(近仇首王)→辰孫王→太阿郎王→亥陽君→午定君 { 味沙 (長子)→葛井史  
壬辰爾(仲子)→船史  
麻呂 (季子)→津史

15) 飯田武郷; 日本書紀通釋 四卷에 依하면 p. 766. '王乎'는 '王後'와 同人이다.

16) 大矢透 ; op. cit. p. 104.

17) 大野晋 ; 上代假名遣의 研究. p. 18

18) 大野透 ; 萬葉假名の 研究. p. 23

文의 假名도 東音과의 깊은 關聯이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런 意圖에서 出發한 本稿는 推古 遣文에 使用된 假名字<sup>19)</sup> 중에서 遇攝 模韻 一等에 속하는 몇 字의 表寫例를 살펴 보는데 그 次第 한다.

## II

이제 東音系의 反映으로 推定되는 遇攝 模韻 一等에 속하는 音假名字를 중심으로 하여 「鳥」「都」「好」「布」 表寫例를 차례로 살펴 보기로 한다.

大野晉教授에 依하면 「上古音에서는 模虞魚韻은 어느 것인데 魚部에 속해 있지만, 魚部 중에서 魚韻은 中舌的으로 變化하고 模虞가 後舌母音으로서의 變化를 밝은 것이고, 模韻은 介母를 所有하지 않은 一等韻으로써 圓唇後舌母音으로 되었다. 圖式化하면 模韻은  $a > o > \circ > u$ 라고 하는 圓唇後舌母音으로서의 變化를 밝은 것이라고 認定된다. 따라서 그 變化의 사이에 [uo] 또는 [wo]라고 하는 二重母音形을 經過한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切韻音은 [o]였다고 推定되는 것이다」<sup>20)</sup>라고 하여, 中古의 音價는 [o]이고, [uo]의 二重母音說을 否定하고 있다. 또 藤堂明保教授는 「六朝時代[o], 唐末[u] 또는 [o]라 하여 [u]音으로서의 變化를 元時代に 내려와서야 이루어진 것이었다」<sup>21)</sup>고 主張하고 있다. 그런데, 推古遣文의 假名表寫例를 檢討해 볼 때, 古代以後 七世紀以前의 東音系가 [uo] 또는 [wo]의 二重母音形을 經過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u] > [o] 變遷段階를 體驗하지 않았을까 한다.<sup>22)</sup> 즉 推古假名에서의 [u]가 그 後 八世紀頃 鄉札에서 [o]로 表寫되었음을 본다.<sup>23)</sup> 推古遣文

19) 推古朝의 遣文에 쓰인 假名는 約 八十個다

阿, 伊, 夷, 孑, 宇, 有, 意, 加, 奇, 宜, 支, 岐, 吉, 歸, 貴, 久, 氣, 居, 舉, 希, 養, 古, 己, 佐, 作, 沙, 斯, 自, 楚, 嗽, 多, 侈, 陀, 知, 智, 至, 暹, 都, 郞, 代, 等, 止, 奈, 那, 尔, 奴, 蕤, 尼, 乃, 波, 比, 非, 布, 夫, 俾, 富, 凡, 菩, 麻, 明, 彌, 未, 牟, 賈, 米, 母, 夜, 移, 由, 余, 與, 己, 良, 羅, 利, 留, 禮, 里, 和, 韋, 乎 <以上>

20) 大野晉, 上代假名遣의 研究, p 197.

21) 藤堂明保; 漢字語源辭典 p 385.

22) 李基文; 國語音韻史研究 pp. 106~107.

23) ○ 遊鳥隱城叱勝良望良古 <慧星歌>

(눈은 자스홀라넵라고)

○ 三花矣岳音見賜烏尸聞古 <慧星歌>

( 의옴보샤 울 듣고)

○ 郎也持以支如賜烏隱 <讚者婆郎歌>

( 이디니 다샤 온 )

○ 世理都之叱遠烏隱第也 <怨樹歌>

(누리도아 칠은 게여)

○ 阿多音乃叱好支賜烏陰 <蕤竹旨郎歌>

(아름나 호 샤 온)

또, 三國史記에서의 「地名」 表記에서도 [O]로 읽혀지고 있음을 본다.

禿山郡本高句麗烏斯舍達縣 <三國史記, 卷35>

孤山縣本百濟烏山縣 <三國史記, 卷36>

보다도 百餘年 뒤에 記錄으로 推定되는 日本書紀(前述)의 人名表記의 경우에서까지도 大部分[u]로 反映되었음을 본다.

[u]의 表寫例 :

ウコハ

烏胡跛(人名) <日本書紀, 欽明紀5年>

ウナラ

烏奈良(人名) <日本書紀, 崇峻紀4年>

[o]의 表寫例는 아주 드물다.

マタノヲ

麻拖能烏(人名) <日本書紀, 垂仁紀88年> 또는

マタノヲ(人名) <日本書紀, 垂仁紀4年>

麻多能烏

그리고, 萬葉集에서도 ‘烏梅(ウメ)의 [u]表寫例가 發見될 뿐이다.

ウメノハナ

烏梅能波奈 <五卷, 816, 817, 818, 820, 823, 825, 829, 830, 831, 832, 834, 835, 836, 838, 840, 841, 851, 852>

또는 烏梅乃波奈 <五卷, 824>

ウメノハナニモ

烏梅能波奈爾母 <五卷, 819>

ウメノハナトヲ

烏梅能波奈等速 <五卷, 826>

ウメノハナカモ

烏梅能波奈加母 <五卷, 828>

또는 烏梅能波奈可毛 <五卷, 844, 846>

ウメヲヲキツツ

烏梅乎乎岐都都 <五卷, 815>

ウメノシヅエニ

烏梅能之豆延爾 <五卷, 834>

[ウメ]를 다음과 같은 音假名字로도 表記했다.

ウメノハナチル

宇米能波奈知流 <五卷 822, 839>

ウメガハナ

于烏縣一云都烏

<三國史記, 卷37>

猪足縣一云烏斯廻

<三國史記, 卷37>

宇米我波奈 <五卷, 845>

ウメノハナ

宇梅能波奈 <五卷, 843> 또는 宇梅能 半奈 <五卷, 849>

ウメノハナニモ

于梅能波奈爾忘 <五卷, 864>

ウメガハナサク

汗梅何波奈佐久 <五卷, 838>

ウメノハナ

有米能波奈 <五卷, 850>

윗 用例에서 「烏」는 대개 [u]이고, 드물게 [o]로 反映되었음을 본다. 이에 對하여 藤井茂利教授는 梁柱東博士와 一致되는 見解 즉 [u]와 [o]의 相通 轉用 用法으로 보았다.<sup>24)</sup> 그런데, 「烏」는 遇撮, 模韻 一等韻 중에서 體系밖에 놓여졌던 것으로 推定되므로 大野晋教授의 模韻變化 公式——ā→o→o→u(前述)나 藤堂明保教授의 公式——周a→六朝o→唐o→元u→北京u(前述)로는 說明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왜냐 하면 그들은 [u]음으로의 變化를 元代以後로 보았기 때문에 中國音韻의 變遷에서는 「烏」가 一段 除外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앞에서 例示한 鄉札에서의 [o]는 古代以後 600年初頭(推古朝) 以前에, 이미 [u] > [o]의 變化를 體驗한 것이 아닐까 하며, 이 段階 以前の [u]가 日本의 「記紀」 「萬葉集」 등에 反映된 것으로 推定된다.(이 點은 日本 吳音が 體系밖에 있는 [ウ]를 가지고 있음과 聯關이 있을 것 같다) 윗 例에서 [ウメ]를 「烏梅」「字梅」「于梅」「汗梅」「有米」로 表記하여 「烏」를, 다른 「字」「于」「汗」「有(ウ)」와 같은 [u]로 表寫했음을 볼 수 있다 이 「烏(ウ)」는 中國의 「烏梅」란 成語를 잘 알고 있는 者, 또 萬葉集 表記에 영향을 미친 者<sup>25)</sup>의 反映인 것으로 推斷되며, 이것이 곧 東音系 [u] > [o] 變化段階 以前の [u]가 위 文獻에서 反映된 것으로 推定된다. 李基文教授는 中世 蒙古語의 母音 u와 u가 中世國語의 借用語에 各其 'ㄴ'와 'ㄷ'로 받아들여졌다는 事實에 根據를 두고, 十三世紀의 前期 中世國語에서는 'ㄴ'와 'ㄷ'가 各其 [u](圓唇後舌高母音)와 [u](圓唇中舌高母音)였다는 假說을 提示한 바 있다.<sup>26)</sup> 그런데, 이 假說에 對하여 服部四郎教授는 韓國語의 開·閉母音調和를 主張하여, 圓唇中舌高母音 [u] 對 圓唇後舌高母音 [u]를 가졌었다고 主張하려면, 바로 그 앞 段階에서 韓國語가 前·後舌母音調和를 가졌었음을 證明해야 한다고 했고, 그렇지 않으면 'ㄴ'가 十三世紀에 圓唇後舌高母音이었다고 말하기 위하여는 'ㄷ'가 그대에 圓唇前舌高母音 [y]이 있었음을 證明해야 하는데 現在로서는 위의 두가지를 證明할 수 없다고 主張하였다. 또, 그는 八世紀頃 中國語의 蒙韻 및 候韻에 속하는 것만을 例로 들어(模韻의 경우는 例示하지 않았음이 注目됨)

24) 藤井茂利, 萬葉集의 音假名と 朝鮮漢字音 p 103

25) 日本書紀에 依하면 當時 日本朝廷의 筆錄을 담당했던 '船史'들이 우리 先祖들이었고, 또 倭人들이 이보다 앞선 時期부터 우리 先祖들에게 漢文을 배웠다는 事實과 聯關이 있을 듯하다

26) 李基文, op cit pp 111~113

韓國語가 識者層에서는 [-ao] 또는 [-au] 및 [-ɔu] 같은 二重母音을 가졌음에 틀림없지만, 十五世紀까지에는 單母音 ‘ㄱ’ [-o] 및 ‘ㄷ’ [-u]로 變化하였다고 했고, 같은 面에서 다시 위의 說明을 반복해서 「韓國語가 西紀 800年頃에 [-ao] 또는 [-au]나 [-ɔu] 같은 二重母音을 가지지 않았다면(識者層이 아닌) 一般民衆은 漢字音이 들어온 直後부터 [-ao]나 [-ɔu] 代身에 [o], [u]로 發音하기 시작하였을 公算이 큰 데 이것은 ‘ㄱ’와 ‘ㄷ’가 그 때에 [o]와 [u]였음을 意味한다」<sup>27)</sup>고 했다 그러나, ‘元朝秘史’나 ‘八思巴文字’의 中世蒙古語에서는 服部四郎教授의 主張을 是認한다고 하더라도, 日本 上代의 ‘推古遺文’이나 ‘記紀’에서의 [u]表寫例는 어찌 說明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위의 服部四郎教授의 설명에서 본다면 漢字音이 ‘識者層’에서는 二重母音으로 ‘非識者層’에서는 單母音으로, 각각 달리 發音되고 있었다는 說明으로 들리며, 또, 이것은 ‘規範音’과 ‘現實音’을 各各 混同한 듯한 印象을 주며, 八世紀頃 非識者層에서의 單母音 [o] 및 [u]를 認定한 셈이 된다 앞에서 李基文教授의 推定時期인 十三世紀에서, 오히려 그 보다 앞선 推古朝(554~628A D) 以前에서 [u] > [o] 變遷을 體驗했을 可能性이 크다 그 以前の [u]가 日本上代資料에 反映된 것이 아닐까 한다

遇攝 模韻 一等에 속하는 「都」가 鄉札에서는 [to]인데,<sup>28)</sup> 이것도 「烏」의 경우에서처럼 七世紀 以前の 推古假名에서 는 [ノ]이었음을 볼 수 있다

- ムケノ
- 牟義都 <上宮記逸文>
- ナカノヒコ
- 那加都比古 <上宮記逸文>
- ナムノワケ
- 几牟都和希 <上宮記逸文>
- イハノクワケ
- 伊波都久和希 <上宮記逸文>
- ミコ ノ ヌ ム ノ
- 兒都好牟斯 <上宮記逸文>
- ノクキ
- 都鬼 <元興寺 露盤銘>
- アサノマ

27) 服部四郎, 中世韓國語의 母音調和 및 母音體系(1974) pp 35~40

28) 安支尙宅都乎隱以多 <遇賊歌>  
 (안디새집도 의 니다)  
 吾隱去內如辭叱都 <祭亡妹歌>  
 (나는가능다말入도)  
 世理都之叱逸鳥隱第也 <怨歌>  
 (누리도아 절 은 베여)  
 又都佛體叱事伊置耶 <怨歌>  
 ( 또 부터入일이두라)

阿抄都麻〈上宮記逸文〉

또 古事記에서도 [ツ]로 읽었다.

アメ ヒトツバシラ

天比登都柱〈古訓 古事記 上卷 5〉

トヨフツ

豊布都〈古訓 古事記 上卷 9〉

ヤクモタツ

夜久毛多都〈古訓 古事記 上卷 30〉

ツマゴミ

都麻碁微〈古訓 古事記 上卷 30〉

マツブサ

麻都夫佐〈古訓 古事記 上卷 40〉

イツキマツレ

伊都岐奉〈古訓 古事記 上卷 59〉

フキツツ

布伎都都〈古訓 古事記 上卷 12〉

ウツシヒ

宇都志日〈古訓 古事記 上卷 16〉

또 萬葉集에서도 [ツ]로 읽었다.

ツマヤサブシク

都麻夜佐夫斯久〈五卷 795〉

メグシウツクシ

米具斯宇都久志 五卷 800〉

ウケグツラ

宇既具都遠〈五卷 800〉

ヌキツルゴトク

好伎都流其等久〈五卷 800〉

トリツツキ

等利都都伎〈五卷 804〉

스그시야리쓰레

周具斯野利都禮〈五卷 804〉

イツ노마카

伊都乃麻可〈五卷 804〉

ツルギ타チ

都流伎多智〈五卷 804〉

サツユミヲ

佐都由美乎〈五卷 804〉

ツネニアリ케る

都稱爾阿利家留〈五卷 804〉



タツノマモ  
 多都能馬母 〈五卷 806〉  
 ウツツニハ  
 宇豆都仁波 〈五卷 807〉  
 ツチニ  
 都地爾 〈五卷 812〉  
 アメツチノ  
 阿米都知能 〈五卷 814〉

日本書紀의 用例에서는 [ツ]가 支配的이고, 아주 드물게 [ト]가 보인다.  
 [u]의 表寫例 ;

ヒツルツ  
 比津留都(地名) 〈欽明記 20年〉  
 ツスル コムル  
 都須流 金流(高麗人) 〈皇極記 元年〉  
 ツヌ  
 都努(人名) 〈天武記 13年〉  
 コツ  
 苦都(新羅, 馬飼奴) 〈欽明記 15年〉  
 サロマツ  
 佐魯麻都(百濟人) 〈欽明記 20年〉  
 ツクシキノサシ  
 都久斯岐 城(達句城) 〈雄略記 8年〉  
 ツラ  
 都羅(耽羅人) 〈天武紀 2年〉  
 마쯔쯔  
 朱都願父(百濟人) 〈天智紀 7年〉  
 シセツヒメ  
 新齊都媛(百濟人) 〈應神紀 39年〉  
 ツツキル ムレ  
 都都岐留山(百濟地名) 〈齊明紀 6年〉

[O]의 表寫例

サドノ シマ  
 沙都嶋(巨濟島) 〈繼體紀 9年〉  
 トトク  
 都德(百濟 官位) 〈安閑紀 元年〉  
 ト クワラ  
 都貨羅 〈齊明紀 3年〉  
 트라

都羅(王子이름)〈天武紀 2年〉

(一名 [ツラ]로도 읽었음)

ト タウ

都堂(明王廳名)〈欽明紀 15年〉

(一名 [ツ ダウ]라고도 읽었음)

그런데, 왜 [ト]음의 「都」字가 [ツ]의 假名로 읽혀졌는가? 이에 對하여 大野晋教授는 「模韻・尤韻의 頭子音의 問題와 關係를 가지게 해서 才列 甲類에 사용된 文字와 同類의 假名가 ウ列에도 사용된 것을 보면 이들 模韻, 候韻의 韻形이 才列 甲類와 ウ列과의 兩者에 關聯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舌音(來母를 包含해서)에 集中되어 있는 것은 相當히 注意를 끄는 것이다. 즉 ウ列에는 模韻과 尤韻의 文字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것은 모두 三等韻이다. 舌音三等的 母는 「知, 徹, 澄, 孃」이고, 一等的 「端, 透, 定, 泥」와는 相違한 것이다. 또 B. Karlgren 教授에 依하면 三等的 ‘知, 徹, 澄, 孃, 을 ‘t, t’, d, n, 이라고 推定하고 一等的 ‘端・透・定・泥’를 ‘t, t’, d, n, 이라고 推定하고 있다. 韻形에서 보면 模韻, 尤韻은 필경 日本語의 ウ列에 가장 適合한 것이었지만, 模韻, 尤韻의 舌音은 그 頭子音이 ‘t, d, n, 등이었고, 當時의 日本語 ‘シ, ツ, ヌ, 의 音이 었다고 여겨지는 ‘tu, du, nu,의 頭子音에 꼭 適合하지 않고 다른 音으로써 들려졌다. 그러므로 그의 ‘tu, du, nu,를 避하고 ‘tu, du, nu,에 가장 가까운 印象을 주는 模韻 候韻의 一等的 文字를 兼用하고 그 音을 表記하려고 한 것이라고 여겨진다.<sup>29)</sup> 라고 했다. 즉 變種의 子音을 避하고 가장 가까운 子音을 選擇한 結果, 模韻의 漢字가 ウ列表寫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에 對하여 森山隆教授는 「模韻의 漢字로 ウ列音을 表寫하고 있는 것은 舌音系 以外에도 ‘汗, 烏, 苦, 素, 布, 등이 있으므로 이런 漢字가 ウ列音을 表寫하는 理由를 大野教授의 學說로는 說明될 수 없다.」<sup>30)</sup> 또, 그는 「600年代 初頭 즉 推古朝頃에는 上代 才列 甲類는 [o]보다 오히려 조금 떨어진 [ɔ]에 가까운 母音이었을 것이다. 즉 二重形의 現象을 才列甲[ɔ]가 才列甲[o]에 變하여지고 있는 700年 前後를 境界로 하고 생긴 現象일 것이다. 그 하나의 理由는 萬一 ウ列이 당시 圓唇後舌母音의 [u]이기도 하고, 才列 甲이 [ɔ]이기도 한 때에는 거의 混亂의 餘地가 없었을 것이다. 從來 明確했던 才列甲[ɔ]와 ウ列[u]의 差는 그 調音域의 接近에 따라, 조금 分別에 明確의 度를 缺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그때까지 [u]로 發音되었던 音節이 [o]로 잘못들려지고, 또 [ɔ]의 狹母音化가 입술의 닫는 法과 舌의 位置上昇에 따라 或은 [u]로 잘못 들렸기 때문에, 一時的으로 兩者의 混頓은 容易해졌다고 생각된다.

또 才列甲類[ɔ]가 600年代부터 700年代 初頭に 걸쳐 점차 [o]音化했기 때문에, 그 影響을 받아 ウ列 [u] 自體의 存在도 不安定하여졌다. 따라서 ウ列自身도 才列甲의 混頓을 避

29) 大野晋 ; pp. cit. p.199.

30) 森山隆 ; 上代國語音韻の 研究. p.234.

하기 위해서 圓唇後舌의 [u]의 性格에서 벗어나고 口唇의 圓唇性이 弱한 것에서 약간 前方의 [w]로 變化한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sup>31)</sup> 즉 [ɔ]→[o], [u]→[w]의 母音變化의 假說은 模韻의 漢字가 [u]음을 表寫할 수 있다는 것을 間接的으로 說明한 셈이다. 이에 對하여 藤井茂利教授는 模韻과 같이 才列甲類 表記에 適當한 字母가 있으면서 왜 더 넓은 豪韻 所屬字 [āu]를 牙舌唇音에 限하여 사용했는가? 또 [ɔ]→[o]의 母音變遷을 생각하고 있으나, 果然 豪韻 所屬의 文字가 廣母音으로서 渡來했을까가 疑問이라고 했다.<sup>32)</sup> 즉 森山教授는 中國音이 그대로 日本에 傳來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에 對하여 藤井教授는 漢字가 朝鮮半島에서 여러가지로 音變化를 한 後에 日本으로 傳來된 것으로 보았으며, 豪韻 所屬 漢字「刀」의 韻이 [o]임을 들어서 森山教授의 假說을 否認했다. 다시 말해서 藤井教授는 [o], [u]의 相通 轉用의 用法이 日本에 傳來된 것으로 보았다.<sup>33)</sup>

以上을 要約해 보면, 藤井教授가 主張하는 바와 같이 朝鮮半島가 漢字音을 日本에 傳授하는 經由地로서의 구실만 한 것이 아니라, 朝鮮漢字音에 一段 同化된 後, 이것이 다시 日本에 傳來되었다는 見解에는 全的으로 同調하지만, [u]와 [o] 相通 轉用 用法이 있었다는 點에 對하여는 同意할 수 없다. 600年初頃(推古期)에는, 「都」가 模韻 一等韻 중에서 體系 밖에 놓였던 것으로 推定되므로, 大野晉의 模韻變化 ā→ɔ→o→u(前述)나, 藤保의 公式—周a→六朝o→唐→o→元u→北京u(前述)로는 說明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왜냐 하면, 그들은 [u]音으로의 變化를 元代以後로 보았기 때문이다. 앞에서 例示한 鄉札에서의 [to]도 古代以後 600年初頃(推古朝) 以前에 [u]>[o]의 變化를 體驗한 것이 아닐까 하며(앞에서의 「烏」가 [u]>[o]를 經驗한 것처럼) 이 [u]>[o]變化 以前의 [u]가 推古遺文 및 日本 上代文獻에 反映된 것으로 推定된다(이 點은 日本 吳音이 體系外에 있는 [ツ]를 취하고 있음과 關聯이 있을 것 같다)

왜냐 하면 日本 上代文獻중에서도 最古의 文獻인 推古朝 遺文(前述)에서 [ツ]로 읽었음이, 이보다 百餘年 後의 記錄으로 推算되는 記紀(前述)에서까지도 [ツ] 또는 [ト]로 읽혀졌기 때문이다.

다음의 「奴」도 鄉札에서 [no]로 읽었지만<sup>34)</sup> 推古遺文에서는 [nu]로 表寫되어 있음을 본다.

31) *ibid*; p. 218.

32) 藤井茂利; *op. cit.* p. 97.

33) *ibid.* p. 98.

34) 李崇寧; *op. cit.* p. 86.

奴音竹 (陰竹)

奴只 (武珍, 武州, 光山)

奴斯火 (其火, 茲仁)

奴同覺 (軍威)

今勿奴 (首知, 萬弩)

仍伐奴 (穀壤, 衿州)

骨衣奴 (荒壤, 新豐德)

ヨヌ

余 姬 (臣) 〈上宮記逸文〉

オヌ

意奴 〈元興寺 露盤銘〉

タチヌ

多智奴 (女王) 〈上宮太子系譜〉

ヌカゴリ

奴加己利 〈天壽國曼荼羅繪帳銘〉

萬葉集에서도 「奴」가 「nu」를 表寫했음을 본다.

ヲモハヌアヒダニ

於母波奴阿比陀爾 〈五卷 794〉

クヌチコトゴト

久奴知許等其等 〈五卷 797〉

チリヌベシ

知利奴倍斯 〈五卷 798〉

ヌバタマノ

奴婆多麻能 〈五卷 807〉

コトトハヌ

許等等波奴 〈五卷 811〉

アリコセヌカモ

阿利己世奴加毛 〈五卷 816〉

モノスンヌレヌ

毛能須蘇奴例奴 〈五卷, 855〉

モノスンヌレテ

母能須蘇奴例로 〈五卷, 861〉

ユカヌマツラヂ

由加奴麻都良遲 〈五卷 870〉

ノチハシヌトモ

能知波志奴等母 〈五卷 889〉

古事記에서 「nu」를 表寫하는 音假名字는 「奴」, 「怒」가 쓰이고 있다

ヌバタマ

奴波多麻 〈上卷, 39, 40〉

ソニヌギウ

曾邇奴岐宇 〈上卷, 41〉

ヌシコンハ

奴斯許曾波 〈上卷, 42〉

ヌナトモモユラ

奴那登母母由良 〈上卷, 20〉

シマジヌミ

嶋士奴美 <上卷 30>  
 ヌエハナキ  
 奴延波那伎 <上卷 38>  
 サヌツトリ  
 佐怒都登理 <上卷 39>  
 タクツヌ  
 多久豆怒 <上卷 40, 42>  
 イヌヒメ  
 伊怒比賣 <上卷 46>  
 タカサジヌ  
 多加佐士怒 <中卷 11>  
 ツヌヤマ  
 都怒山 <中卷 17, 20>  
 アサジヌハラ  
 阿佐士怒波良 <中卷 56>  
 ウタダヌシササ  
 宇多陀怒斯佐佐 <中卷 66>  
 ヌビルツミニ  
 悠毘流都美邇 <中卷 72>  
 タヌシクモアルカ  
 多怒斯久母阿流迦 <下卷 4>  
 カラス  
 加良怒 <下卷 13>  
 タザヒヌニ  
 多遲比怒邇 <下卷 14>  
 ツヌ  
 都怒 <下卷 17>  
 ミエシヌ  
 美延斯怒 <下卷 34>

日本書紀에 실려 있는 百濟, 高句麗, 新羅 등의 人名, 地名 表寫例에서 [ヌ]가 支配的이고 [ド]는 아주 드물게 보인다.

[nu]의 表寫例:

ヨヌ  
 余奴 (百濟人) <敏達紀, 12年>  
 カヌチ  
 哥奴知 (百濟人) <敏達紀, 12年>  
 サビキヌ  
 沙鼻岐奴 (新羅地名) <天智紀 二年, 神功紀 49年>  
 シナヌ  
 斯那奴 (人名) <繼體紀 10年>

ヌエ

奴江(人名)〈天智紀 2年〉

ヌスクリ

奴須久利(人名)〈繼體紀 24年〉

ヌルキ

奴流枳(高麗人)〈仁賢紀 6年〉

(一名 “トルキ”)

[do]의 表寫例:

ドルキ

奴流枳(高麗人)〈雄略紀 6年〉

(一名 [ヌルキ])

アレドク

阿禮奴跪(人名)〈雄略紀 元年 2年〉

コマドク

己麻奴跪(人名)〈欽明紀 5年〉

앞의 여러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것을 [u]와 [o] 相通 轉用의 用法이라는 主張(前述)에는 同意할 수 없다. 「奴」는 遇攝 模韻 一等韻 중에서 體系 밖에 놓였던 것으로 推定되므로 大野晋教授의 模韻變化 公式(前述)으로나, 藤堂教授의 公式(前述)으로는 說明이 不可能하지 않을까 한다. 왜냐 하면 그들은 [u]로의 變化를 元代以後로 보았으므로 中國音韻의 變遷에서는 說明할 수 없으며, 이 「奴」는 거기서 一段 除外된 것으로, 이것도 東晉과의 關聯에서만 說明이 可能하기 때문이다. 鄉札에서의 [no]는 古代以後 600年初 推古朝 以前에서 이미 [u] > [o]의 變化를 겪은 것으로 推定되며, 이 [u] > [o] 變化段階 以前の [u]가 推古遺文에 反映된 것이 아닐까 한다. 왜냐하면 日本 最古의 文獻으로 古音을 保有하고 있는 推古遺文에서의 [nu] 表寫例가 百餘年이나 뒤늦은 記紀(前述)에서까지도 [ヌ] 및 [ド]가 보이기 때문이다. (이 點은 日本 吳音이 [ヌ]를 취하고 있음과 聯關이 있을 듯) 暮韻 一等에 속하는 「布」도 推古遺文에서 [hu]로 表寫했음을 본다.

フリヒミ

布利比彌 〈上宮記逸文〉

フデハラコト

布遲波良己等 〈上宮記逸文〉

フシ

布斯 〈上宮記逸文〉

フトタマシキ

布等多麻斯岐 〈天壽國曼荼羅繡帳銘〉

萬葉集에서도 「布」는 [hu]로 表寫했다.

フタリナラビキ  
 布多利那良毗爲 〈五卷 794〉  
 アフチノハナハ  
 阿布知乃波那波 〈五卷 798〉  
 ミレバタフトシ  
 美禮婆多布斗斯 〈五卷 800〉  
 フミノキテ  
 布美奴伎提 〈五卷 800〉  
 ユクチフヒトハ  
 由久智布比等波 〈五卷 800〉  
 アフヨシモナシ  
 安布余志勿奈子 〈五卷, 807〉  
 シヅメタマフト  
 斯豆迷多麻布等 〈五卷, 813〉  
 フタツノイシラ  
 布多都能伊斯乎 〈五卷, 813〉  
 ヒレヲフリケム  
 必例遠布利家牟 〈五卷 872〉

또古事記에서도 [hu]로 表寫했다.

コモフサハズ  
 許母布佐波受 〈古訓 古事記 上卷 41〉  
 フハヤカシタニ  
 布波夜賀斯多爾 〈古訓 古事記 上卷 42〉  
 ナハイフトモ  
 那波伊布登母 〈古訓 古事記 上卷 41〉  
 이신타프야  
 伊斯多布夜 〈古訓 古事記 上卷 39, 40〉  
 フトミラグラト  
 布刀御幣登 〈上卷, 25〉  
 우케프트키  
 宇氣布時 〈上卷, 20〉  
 フトタマノミコト  
 布刀玉 命 〈上卷, 24〉

日本書紀의 人名, 地名表記에서 [フ]가 支配的이고, 드물게 [ホ]가 보인다.

[hu]의 表寫例 :

フセノアソミ  
 布勢 朝臣 ( ) 〈持統紀 3年, 天武紀 元年〉  
 クチフレ

久遲布禮(人名)〈繼體紀 24年〉

フナムラ

布那牟羅(地名)〈繼體紀 25年〉

フシノオビト

布師 首〈持統紀 10年〉

[ho]의 表寫例:

ホミキ

布彌支(地名)〈神功紀 49年〉

サホノミヤケ

匝市 屯倉〈繼體紀 8年〉

위의 ‘布’는 暮韻에 속해 있고 藤堂氏의 推定에는 周 pag→六朝 po→吳音 フ→唐音 po 漢音ホ→元pu→北京Pu<sup>35)</sup>라고 한다. 吳音이 [フ], 漢音이 [ホ]이지만, 中國音韻의 變遷서에는 一段 除外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것을 東音系로 보는 편이 더욱 妥當한 說明이 되지 않을까 한다. 이것은 [pu]와 [po]의 相通 轉用의 用法이 渡倭한 것이라기 보다는, 前述한 바와 같이, [u]>[o]變化段階 以前の 東音系[u]가 推古朝 遺文을 비롯한 日本 上代 文獻에 反映된 것으로 推定하는 편이 좀더 妥當하지 않을까 한다.

### Ⅲ

以上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古代以後 十五世紀까지에 漢字音(現實音) 資料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日本 上代 文獻에 依存한다면 三國時代의 人名, 地名, 官名 등의 表寫資料를 얻을 수 있다.

2) 日本書紀에 依하면 推古遺文은 渡倭한 우리 先祖——所謂 船史(フナノフビト)인 船氏一族의 손으로 記錄되었음을 推斷할 수 있고, 또 이것이 現存한 最古의 音假名資料이므로 이 推古朝 假名(筆者 推算으로 約 80餘個)와 東音과는 깊은 關聯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推古假名을 가지고 五~七世紀 以前の 東音體系에 대한 逆視・再構도 可能할 것이다.

3) 遇攝 模韻 一等韻이 體系內에서는 全部 [o]인데, (日本 漢音에서도 [オ]) 推古朝 假名에서 「烏」「都」「奴」「布」등은 모두 體系밖에 있는 [u]로 表寫되었으므로 中國의 音韻變遷에서 一段除外된 것으로 取扱해야 되며, 이것들은 東音과의 關聯에서만이 說明이 可能할 것이다.

4) 大野晋教授나 藤堂明保教授의 模韻變化 公式으로는, [u]로의 變化時期를 元代以後로

35) 藤堂明保; 漢字語源辭典. p. 385.



보았기 때문에, 體系 밖에 있었던 推古假名인 「烏」「都」「奴」「布」의 音韻變遷 段階는 說明될 수 없다. 왜냐 하면, 600年 初頭의 推古遺文에서 이미 [u]로 表寫되었고, 이것보다도 百餘年이나 뒤늦은 日本書紀가 三國의 人名, 地名등의 表寫資料에서 매개 [u]로 쓰였고, 아주 드물게 [o]로 表寫되었기 때문이다. (日本書紀에서: 都羅(耽羅人)을 [ツラ] 또는 [トラ]로, 奴流積(高句麗人)을 [ヌルキ] 또는 [ドルキ]도 일었다) 다시 말해서 大野晉教授나 藤堂教授의 公式(前述) [o] > [u]의 變化段階로는 體系밖에 놓여 있는 一群의 韻에 對한 合理的 說明이 不可하며, [u] > [o] 段階의 設定으로만이 그것이 옳게 풀릴 것이다. 따라서 [u] > [o]의 變化段階 直前に 있던 [u]가 日本 上代文獻에 反映되어 表寫된 것으로 推定되기 때문에 藤井教授의 [o] [u]相通 轉用用法으로 볼 수 없을 듯하다.

5) 模韻 一等韻 중 體系밖의 것으로 推定된 위의 四字가 日本 漢音[オ]보다도 吳音[ウ]에 더 一致하는데, 推古假名의 其他 韻의 경우에서 考察해 보아도 一律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吳·漢音 중 吳音에 더 가깝다는 印象이 支配的인을 指摘해 두고 싶다.

### 參 考 文 獻

- 姜信沆, 韻解 訓民正音研究, 韓國研究院, 1967.  
 ——, 四聲通解研究, 新雅社, 1973.  
 ——, “十五世紀文獻의 現實音에 對하여” 1975. (成大刊行, 東洋學 學術會議 論文集)  
 金完鎭, “國語母音體系의 新考察” 震檀學報 24, 1963.  
 ——, “續添洪武正韻에 대하여” 震檀學報 29, 30 1966.  
 南廣祐, 朝鮮(李朝) 漢字音研究, 東亞出版社 1969.  
 朴炳采, 古代國語의 研究(音韻篇), 高大出版部 1973.  
 李基文, 國語音韻史研究, 韓國文化叢書 13, 1972.  
 李崇寧, “新羅時代의 表記法體系에 關한 試論” 1955. (서울大 論文集 人文社會科學 第二輯)  
 李弘植, 韓國古代史의 研究, 新丘文化社, 1970.  
 董同龢, 漢語音韻學, 廣文書局, 臺北, 1968.  
 張世錄, 中國音韻學史 上下, 商務印書館, 1965.  
 鄭然榮, 洪武正韻譯訓의 研究, 一潮閣, 1977.  
 羅常培, 漢語音韻學導論, 太平書局, 1965.  
 河野六郎, 朝鮮漢字音의 研究, 朝鮮學報 31~35輯 1964~1965.  
 藤堂明保, 中國音韻論, 江南書院, 1957.  
 有坂秀世, 國語音韻史의 研究, 三省堂, 1957.  
 山田孝雄, 國語의 中に於ける 漢語의 研究, 寶文館, 1935.

藤井茂利, “萬葉集の音假名と朝鮮漢字音” (鹿兒島大學「文學科論文集」第十二號) 1976

服部四郎, “中世韓國語의 母音調和 및 母音體系” (學術院二十週年記念講演會) 1974.

藤堂明保, 漢字語源辭典, 學燈社

植松茂, 古事記漢字索引, 東京堂

飯田武鄉, 日本書紀通釋 第一~五, 東京印刷株式會社

村林孫四郎, 古事記辭典, 錦正社

森山隆 }  
鶴久 } , 萬葉集, 櫻楓社

大野晋 }  
佐竹昭廣 } , 古語辭典, 岩波書店, 1974.  
前田金五郎 }

夏忻, 古韻集說

陳彭年等, 校正宋本廣韻 藝文印書館印行

張麟之, 韻鏡

江有誥, 諧聲表

模範最新世界年表, 三省堂

千字文, 東洋學叢書第三輯, 檀大, 東洋學研究所

新增類合,

三韻聲彙,

全韻玉篇,

## On the phonetic Transcription of ‘烏’ ‘都’ ‘奴’ ‘布’ in *Chugoyumun*

Jong-Chul Lee

There are no documents in Korea to show how the Chinese characters we use today were pronounced until 15th century.

1. Ancient Japanese documents, however, provide ample material which shows how names of people, places, and government posts were pronounced in the three Kingdoms period. According to *Nihonshogi*, it was Koreans who taught Chinese to Japanese and were responsible for recording and making these Japanese documents.

2. According to the ancient Japanese documents, the vowels of the four letters of kana — ‘烏’ ‘都’ ‘奴’ and ‘布’ were pronounced in most cases like [u] and in very few cases like [o]. Some argue that [u] and [o] were interchangeable, but I have a different opinion, because it is certain that the [u] of the four Japanese ‘Chinese characters, was the [u] of Korean, equivalents, before it had changed into [o].

3. The close study of the above-mentioned documents has revealed that the phonetic Sounds of Chinese characters used between the fifth and seventh centuries were not very different from those of Chinese characters we use today except for the prescriptive sounds like *Tong-gukchongun*, palatalization, and [z] sound.